

# 사람과 사람사이



## 정책토론회 참석



■ 임연학 회장은 6월 28일 직능단체 총연합회에서 마련한 당 정책위의장단-직능단체회장간단 '정책대토론회'에 참석, 국내생약농업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임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한약재 규격화제도 시행과 관련 생산농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농민이 단순가공 포장한 약재도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규격품'으로 인정 한방병의원등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 99년 제2차 회장단 회의

■ 최선영 한국약용작물학회장은 오는 2일 작물시험장 회의실에서 '99년 제2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집행부 상견례를 겸해 열릴 이번 회의 안건은 △4개학회 통합사무실 운영건 △학술진흥재단 지원금 공모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

## 제91차 이사회

한국생약협회는 제91차 이사회를 오는 7월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삼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 지난 3월말 정기총회 이후 처음 갖는 이번 이사회는 상반기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방향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도지회장도 함께 참석 연석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상정될 이사회 주요안건으로는 △한약재 규격화제도 시행에 따른 생산자단체 대응방안 △차기 12대회장 수입금액정 문제 △각 도지회장의 중앙이사 자동추대 건 △하반기 협회 사업방향에 관한 건 등이다.

한편 이번 일정중에는 제주도에서 주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희귀 약용식물 시범포 답사, 이와 관련한 특강시간도 포함돼 있다.

## 수입적응성 시험대상 약용작물 22개 품목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7월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입적응성 시험 대상작물 중 약용작물은 곱향, 당귀, 맥문동, 반하, 방풍, 백출, 사삼, 산약, 시호, 오가피, 우슬, 작약, 지황, 창출, 천궁, 택사, 하수오, 향부자, 황금, 황기, 전철, 파극 등 2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종자를 수입해 올 때는 생산자단체인 한국생약협회로부터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경북도지회 정기모임

경북도지회(지회장·배성한)는 6월29일 대구에서 정기 도지회 모임을 갖고 최근 시장동향등 관련정보를 교류했다. 배성한지회장은 한약재 규격봉투 사용과 관련해 적정 포장지 사용과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을 회

원들에게 당부. 최근 식품으로 대량반입돼와 시중유통되고 있는 수입천궁에 대해서도 회원들 스스로 감시자가 돼 불법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 [임명]

△중앙회 사무국 총무 경리담당 대리 장상은(99년 6월21일부)

## [면직]

△충북도지회 진천군지부장 이지대(5월10일부) △서울 강남구지부장 박용복(6월3일부) △대구 중구공판장장 박순동 △경북 김천시 동부지부장 제명환(이상 6월7일부) △중앙회 사무국 총무 경리담당 대리 이인찬(99년 6월19일부)

## [명의변경]

△노순천 인천 남구지부장→인천 동구공판장(6월9일부) △유재균 전북 정읍 시공판장장→정읍시지부장(5월26일부)

## [신규중앙회원]

△이의자(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46) △박동진(경북 문경시 문경을 마원1리 685)

## [내방]

△안상희(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과장) △김영찬(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곽병태(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김경수(교보생명 이사) △임창수(교보생명 차장) △이운석(교보생명 대리) △박철현(농민신문사 논설위원) △이경석(농민신문사 기자) △손명석(밀양신문사 편집국장) △최유성(산림청 임업연구원) △문광운(농어

민신문 기자) △정형모(협회 부회장) △이문섭(협회 부회장) △허성무(협회 부회장) △박재문(중앙이사) △김용한(중앙이사) △신상

섭(단양군 공판장장) △이홍식(서울 강서구 지부장(겸)) △이종범(서대문 공판장장) △노순천(인천 동구공판장장)

## 인/터/뷰

### 쉬린 양 (Shi-Lin Yang)

- 중국의학과학원 약용식물 연구소 소장



△약용식물연구소는 어떤 곳인가?

-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약용작물 연구기관이다. 1백만평 시범포를 조성 1천여종의 약재를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중금속이나 잔류농약등 성분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ABS사로 수출되는 모든 약재들은 우리 연구소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해야 수출할 수 있다.

등 약용작물의 재배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 대단위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들면 산동은 금은화, 영하지역엔 구기자, 감초, 마황 내몽고 지역엔 복사삼, 길경 등 약용작물 단지화를 추진 중이다.

## “한국 한약재 시장 생각보다 규모 커”

△수출품에 대해 그곳 연구소에서 적용하는 약용작물 중금속 기준치는 어느 정도인가?

- 미국을 비롯 각 수출입국의 규제기준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을 예로들면 중금속 중에서도 납, 구리, 수은등이 중점 체크 대상인데 각각 10ppm씩을 일반적인 규제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행인과립의 경우는 5ppm으로 품목별 다소 차이가 있다.

△한국 의 한약 시장과 산지를 돌아본 소감은?

-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놀랐다. 이정도면 품질관리도 매우 체계적으로 되고 있을것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한국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약재들이 중하위급이 대부분인것 같아 안타깝다.

금산에 갔었는데 인삼재배 규모와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앞서있음을 실감했다. 고려인삼이 비싼 이유가 있는것 같다. 중국인삼은 농약잔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못찾고 있다.

△중국에도 생산자단체가 있나?

- 약용식물연구소 산하에 부속 재배연구소가 있다. 이곳에서 천마, 황련

<문>

## 중앙회원모집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우리 생약에 관심있는 모든 분

- 혜택: 1. 생약재배기술지도  
2. 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3.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5%할인  
4. 생약정보제공(한국생약보)  
5. 단체보험가입혜택 부여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회비:

4만6천원(연회비 3만6천원, 가입비 1만원)

가입문의:

협회사무국 전화 02)967-8133

## 생약보를 구독하려면

한국생약협회는 그동안 생산농민과 소비자 여러분들께 생약재배기술과 시세동향 등 다양한 생약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회보인 한국생약보를 월1회 발행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으로 온나라가 금융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저희 협회도 거품빼기식 예산절감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회원이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무료로 생약보를 보내드렸으나 발송비부담이 너무 큰 관계로 부득이하게 98년 4월부터는 협회 중앙회원이 아닌 경우 연간 발송료 명목으로 소정의 구독료를 납부하신 분에 한해서 생약보를 보내드리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약보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협회사무국(TEL:967-8133)으로 연락, 구독신청하시기 바라며 연간발송료(1만원)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성의에 보답키 위해 저희 한국생약보는 보다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약전문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좌번호 : 우체국 010983-0006910 ●
- 예금주 : 한국생약협회 ●
- 문의전화 : 967-8133, 969-6875 ●